

명분없는 전쟁에 피흘릴 수 없다

과병반대투쟁 진행점검

의료지원단의 사우디파견(1월 23일)에 이어 준(準)전투병력인 공군수송단이 2월 19일 아랍에미리트연합 미 공군기지로 떠남에 따라 곧이어 전투병력 파견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각계에서 한국군의 걸프전쟁 파견을 반대하는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전민련은 지난 2월 4일 오후 5시부터 연세대 강기원기념관에서 대학생과 재야단체회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걸프전쟁 파병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대협은 지난 1월 22일 2천여명이 서울·광주 등에서 시위를 가진 데 이어 오는 2월 25일 노태우대통령 취임 3돌을 맞아 전국 각 대학별로 '걸프전쟁 파견반대 및 노 경권 퇴진 결의대회'를 동시다발로 열겠다고 밝혔다.

재야·학생들의 이런 움직임과 함께 여성단체와 보건의료단체도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며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기독교민회 등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 이효재) 24개 회원단체는 2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명분없는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이 피를 흘릴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2일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연합회 교회여성연합회 등과 함께 '걸프전쟁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어머니모임 준비위'를 결성하여 지식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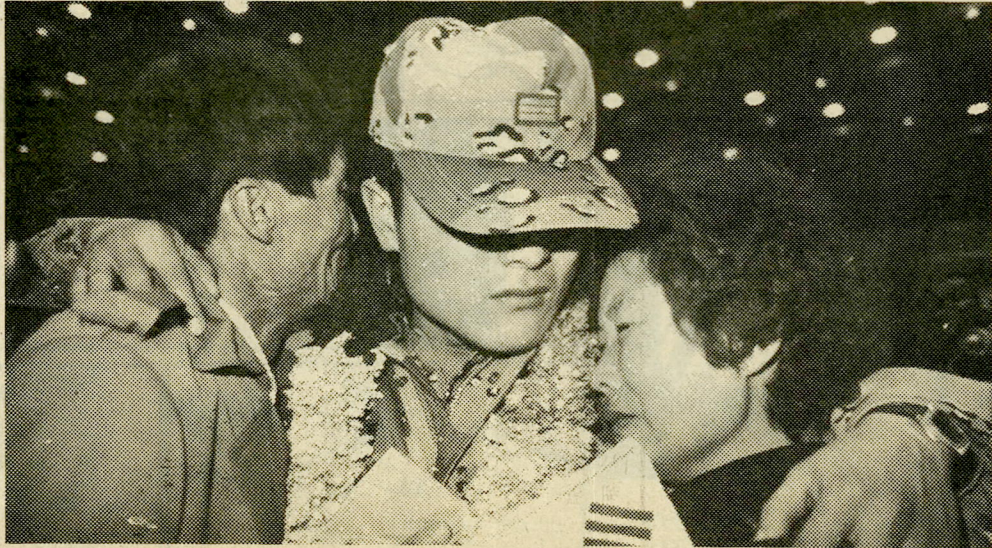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도 1월 31일 공동으로 '페르시아만전쟁 파병을 반대하는 보건의료인 선언'을 발표하고 전 국민적인 서명운

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재야 단체들이 한국군의 걸프전쟁 파견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쪽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걸프전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먼저 전쟁의 성격에 대해 정부는 미국과 같이 '이라크에 침

크가 쿠웨이트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제국주의에 의한 인위적인 영토분할을 아랍민족은 원치 않았고 국제법을 위반하더라도 이 현실을 타개하려는 이라크의 자구책이 걸프전쟁이라고 해석했다.



사진은 지난 1월23일 있었던 국군의료지원단 파견 결단식

재야·학생단체의 파병 반대시위 잇달아 미국 패권주의전략에 이용당할 수 없어

략당한 쿠웨이트의 해방전쟁'이라고 규정짓는 반면 이들 단체들은 '아랍민족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투쟁'이라고 주장한다. 전민련 정책토론회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연구원의 이병승씨는 '원래 쿠웨이트 지방은 오스만터키의 주인이었던 이라크의 한 주(洲)였으나 오스만터키가 쇠퇴하자 영국이 쿠웨이트를 보호령으로 지배했다가 61년 독립국가로 만들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들어 이라

또한 걸프전쟁의 본질을 '미국의 패권주의 군사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쟁'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민족민주운동연구소의 최진태 연구원은 미국이 중동에 군사거점을 마련할 기회를 노리기 위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할 것이라는 것을 3일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사실을 그 예로 들었다. A글라스비 주 이라크 미대사는 이라크, 쿠웨이트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해도 미국은

들은 명분없는 걸프전쟁에 한국군이 참전하는 것에 심한 우려와 반대를 표시한다.

무엇보다 걸프전쟁의 참전이 월남파병과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이다. 미국은 전 세계의 반미·반전 분위기를 의식하여 1주일만에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호언했지만 이미 전쟁은 장기전으로 치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극구 전투병력파견을 부인하고 있지만 의료진파견과 분담금문제 등이

모두 미국측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장기전으로 가는 상황에서 미국이 재차 요청을 해오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월남전 당시도 처음엔 의료진을 보내고 다음에 수송대 및 자체 방위부대인 비둘기부대를 보낸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참전을 했기 때문에 언제 똑같은 과정으로 수천의 한국 젊은이들이 파병되어 피를 흘릴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이들 단체들은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중동과 제3세계 나라들의 거센 반발이다. 전대협 임시의장 김종식(24·한양대 총학생회장)씨는 '걸프전쟁은 아랍민족의 반미자주권투쟁'이라고 규정하며 아랍 민족 스스로가 풀어야 하는 분쟁에 개입하여 중동의 심한 반발을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다. 사실상 월남전 참전 이후 우리나라는 제3세계와 비동맹국가로부터 따돌림을 면치 못했고 외교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걸프전쟁에서 도리어 미국이 아랍민족주의를 부채질하는 이 마당에 '전후 복구사업'에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아랍 민중의 테러위협을 받으면서까지 파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5억원에 달하는 걸프전쟁 분담금문제,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는 절차상의 문제점, 걸프전쟁을 빌미로 준 전시체제를 강요하면서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를 탄압할 수 있는 점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걸프전쟁 파병 반대투쟁은 반전·반미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